

지용제문학상당선작

사야의 골목길

리문호 저



연변인민출판사

지용제문학상당선작

자야의 골목길

리문호 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리화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子夜的小巷: 朝鲜文 / 李文浩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7.8

ISBN 978-7-80698-996-8

I. 子... II. 李... III. 诗歌-作品集-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124005号

子夜的小巷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bs.com>)

印刷: 吉林市京源彩色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6 印张: 7.625 字数: 10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80698-996-8 (民文)

版次: 2007年8月第1版

2007年8月第1次印刷

印数: 1000册

定价: 19.8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진주는 언제나 빛을 낸다

연변작가협회 주석 허통식

뜨는 해와 지는 달을 동반하며 연변지용제문학상이 어느덧 제11회를 맞게 되었다. 이는 또한 지난 4월초에 열린 회원대표대회를 거쳐 새로 탄생된 연변작가협회 제8기주석단이 맞이하는 첫 지용제문학상이기도 하다.

지용제문학상은 이미 중국조선족시단에서 보다 권위성있는 문학상의 하나로 자리매김되고있다. 그만큼 문단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에 그 평의의 공정성이 해마다 거론되고있는 상황이다.

올해에도 그 평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주석단회의에서 신중한 토론을 거쳐 통과된 로, 중, 청으로 결합된 평심소조에서는 무기명작품을 놓고 자세히 읽고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8편 응모작품 1번, 4번,

6번이 그중 우수하다고 거론되다가 최종 1번이 제 11회지용제문학상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평심원들은 나중에야 1번이 리문호, 4번이 김동진, 6번이 심예란의 작품임을 알게 되었다.

평심원들은 리문호시인은 자신의 절실한 생활체험을 통해 느낀 시감을 소박하고 진솔하게 표달했으며 시어가 감칠맛이 나고 결구가 짙이고 구절구절에서 삶이 묻어나온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테면 《봄은 왜 오누》에서 작자는 《초록색치마, 연분홍저고리 날려가고/ 빨래줄엔 바지춤만 축 늘어진 초가집/ 밥짓는 구수한 향기없이 굴통만 외로운/ 봄은 왜 오누》하면서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의 물결따라 마을의 처녀와 나젊은 아낙들이 대도시로, 외국으로 돈 벌러 나가고 장가 못간 떠꺼머리총각, 외토리들이 남아있는 쓸쓸한 마을의 정경을 형상화하면서 날따라 삭막해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안타까이 절규하고있다. 시 《손거울》에서 작자는 자신의 한수 한수의 시는 내 마음의 그림을 못사람들에게 바치는 거울이라면서 《맑고 깨끗한 손거울 위해/ 상상의 수건을 집어/ 가슴의 입김을 불며/ 게으름없이/ 손거울을 닦는다》라고 소박하게 쓰고있다.

리문호시인은 중국조선족문단에서 익히 알고있는 유능한 료녕적 시인이다. 이젠 60고개에 오른 리문호시인은 거의 40년간 시와 씨름해온 문단의 감농군이다. 리문호시인은 1970년 소방부대에서 근무할 때 《연변문예》에 《야영의 길에서》를 발표하면서 시단에 데뷔하였다. 그후 그는 여러 신문과 잡지에 수백편의 시를 발표하였는데 대표작으로는 《영동포의 밤

2/ 자아의 굴목길

거리》, 《고향길에서》, 《과도의 노래》, 《양춘3월》 등이 있다. 시에서의 작자의 부단한 탐구와 끈질긴 노력은 끝내 열매를 맺어 다년간 묻혀있던 진리가 제자리를 찾아앉아 빛을 뿌린 셈이라 하겠다.

우리의 시단에서 많은 시인들이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고자 땀 흘리고 뼈를 갈며 진통을 겪고있다. 하지만 《자식》을 낳기 위해 고심하는 태도는 각이하다. 어떤 사람은 시적령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책상머리에서 머리를 쥐여짜고 어떤 사람은 시의 소재를 찾아 부지런히 돌아다니기도 한다. 각자들의 태도와 행실을 보아 누구한테서 사람들의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시가 쏟아져나오리라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서적요소가 없는것은 시라고 할수 없다. 하지만 어떠한 정서가 움텄다 해서, 어떠한 령감이 떠올랐다 해서 그것이 곧바로 시가 되고 작품으로 남는것은 아니다. 한편의 시가 되고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무한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것이다.

시인은 현실생활속에서 금맥을 찾아다니는 광부와 같이, 보편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 골몰하는 철학자와 같이 싫증 없이 부지런해야 할것이다. 시인은 현실만이 아닌 미래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실들속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 부지런히 시를 쓰며 아파하는 사람에게 붕대를 감아주고 항상 따뜻한 손길로 간호하며 아름다운 꽃병을 환자의 머리맡에 놓아주는것과 같은 마음으로 시를 써야 한다는 선인들의 충고가 십분 내 가슴에 와닿는다.

이번에 응모된 8편의 시편들이 보편적으로 우수하다는것이 평심위원들의 평가였다. 나 자신은 시에

대해 아는것이 없지만 그래도 저으기 위안을 느끼게 된다. 시장경제의 충격으로 개혁개방전보다 문단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사람이 갈수록 적어지고 쓰던 사람도 필을 놓는 현실에서도 돈도 벌수 없고 부자로 될수 없는 외골길을 고집하면서 열심히 시를 쓰고있다는것에 감사하고 존경스러울뿐이다. 앞으로 이런 《외고집쟁이》들한테서 보다 훌륭한 시편들이 쏟아져나올것을 기꺼이 기대해본다.

지난 5월중순에 한국 충청북도 옥천군에 가 《제20회지용문학제》에 참가하고나서 많은것을 느끼고 배웠다. 것처럼 문화를 관심하고 중시하는 지도층과 국민이 있기에 남녀로소 할것 없이 물질적풍요로움뿐만아니라 정신적풍요로움을 함께 만끽하면서 국민의 생활을 보다 이채롭게 가꿔가는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연변땅에도 문화란 칠색주단의 한자락을 건네주면서 10여년간 지용제문학상을 후원해주고있는 옥천군 군청과 한용택군수님, 옥천문화원과 리인석원장님께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바이다. 《지용제문학상》이 보다 이채롭고 차원 높게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2007년 6월 22일

혼신을 다해 시작에 집념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리복호

40년동안 시와 《악연》을 맺어오면서 허탈할 때가 많았다. 그러면서도 혼신을 다해 시작에 집념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나도 뭐라 꼭 짚어 해명할수 없다. 이 고행길에 고혈을 쏟아부으며 노력하였지만 되돌아오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때론 고민과 공허, 심지어 절망이 뒤따를뿐이다. 물론 시란 대가를 바라고 쓰는것은 아니지만 시심이란 《악마》가 심령에 깃들면 축출은 불가능하다. 그가 발작하면 에너기가 방출되어 손에 필을 잡지 않을수 없게 된다. 고질적인 병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시를 운명으로 받아들이 걸어온 과정에는

몇번의 정신적탈피를 인고해야 했다. 극단정치의 류독을 세뇌(洗腦)하며 자아개조, 자아발견의 어려운 길을 걸어야 했다. 따라서 시심도 신진대사 시키며 일반화를 벗어나 나만이 쓸수 있는 시를 쓰는 시세계를 개척해야 했다. 시적완성의 경지를 이룬다는것은 장기적이고 고달픈 려정이다. 시심이 가려워나면 아픔을 가해야 한다. 피가 나더라도.

시장경제도입전의 시경향은 정치의 부속물로 구호식, 숭배식, 정론식이 주류를 이룬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시들이였다. 그러나 시장경제도입후 우리의 시는 또한 방향의 진통을 겪으며 헤매고있다. 현실에는 교감될수 있는 시적소재들이 많지만 회피하는데서 실속과 진실이 없는 시들이 범람하고있다. 그러므로 자아고립되여 독자들의 뺨대를 받고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은 민족의 전통성을 해체할 때가 아니라 고수하며 정체성을 정립할 때이다. 이는 민족문화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결론이라 할수 있다. 민족의 개념은 문화의 개념임을 잘 알고있다. 조선족이 중국력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하여 엄숙한 문화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때이다. 또한 민족의 경제력으로 민족의 문화를 부흥시켜야 한다. 나는 민족문화의 전통성을 주장한다.

물론 나도 시의 갈림길에서 피투성이로 얼룩져 방향하면서 시문학의 전통성과 사실주의방향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시도하기도 했다. 본 시집은 나의 혈혼이라 말할수 있다. 이번에 나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용제문학상의 영예계관을 받음으로 하여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울러 나는 이것을 격려와 고무로 받아

들이고싶다. 그리고 산재지구인 우리 료녕문단에 빛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이번 시집출판의 계기를 빌어 이 기회를 마
련해준 연변작가협회에 감사를 드리며 나를 시단에
등단시켜주신 리상각시인과 본 문학상평심위원들에
게 감사를 드리며 시집을 편집하고 해설을 맡아준
석화시인과 이 시집의 출판에 정성을 부어준 연변인
민출판사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히 지
속적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는 정지용시인의 고향 한
국 옥천군과 옥천군문화원에 심심한 감사와 감격을
표시한다.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시는 민족의 혼불로 오래도록 타오를것이다!

2007년 7월 18일 심양에서

차 례

머리말

진주는 언제나 빛을 낸다 허룡석 1

당선소감

혼신을 다해 시작에 집념하는 원인은
무엇일가..... 리문호 1

제1부 한장의 유화같은 시골풍경

봄은 왜 오누.....	3
한장의 유화같은 시골풍경.....	5
어촌의 밤.....	7
시골의 저녁달.....	9
강남에서 벼를 그리며.....	11
시는 손거울.....	13
꽃과 시.....	15
풀.....	16

허수아비	18
로진의 주막집	20
코끝의 홍매꽃	24
커피점에서의 밀회	26
정월 보름의 초불	28
내가 물려받은 유산	30
자야의 골목길	32
잊혀지지 않는 그 눈빛	34
옆집 털보령감	37
고향의 강 신개하	41
복사꽃	43
내가의 꽃사슴	45
현대문명의 변기(조시)	47

제2부 소쩍새

고향	67
노래가 들립니까	69
소쩍새	71
양모	73
자목련	75
정월 대보름날 밤에	77
집안시를 떠나며	78
태상촌의 저녁풍경	80
붓나무 그리고 까치등지	83
그리움은 외줄기 현금	84
기다림	86
어선이 머문 항만	88

2/ 자야의 골목길

자라곰탕.....	89
수몰된 기억.....	92

제3부 낚시터의 꿈

낚시터의 꿈.....	97
낚시터의 산노을.....	98
낚시터 장막안에서.....	100
황산의 남해 대협곡에서.....	102
장백산천지에서.....	103
진시황릉을 밟으며.....	105
무한 황학루에 올라.....	107
호수의 밤.....	109
호수가 낚시터에 앉아.....	111
내물의 입을 보셨나요.....	112
봄이 온다.....	114
구름 한송이.....	116
꽃을 보는 애기의 마음으로.....	118
바다와 절벽에서.....	120
위해절벽에서의 낚시질.....	121

제4부 강변소곡

강변소곡.....	125
강음에서.....	126
내가의 꽃사슴.....	128
마음속의 서랍.....	130
물의 도.....	132
별.....	134

산천의 정	135
피아노가 울리는 창문	137
잎과 가지	138
가을의 밀어	139
계화꽃 피는 공원에서	141
꽃입술	143
들국화로 피여오기까지	144
꽃우산	145
우리 둘사이엔	146
홍매화	148
그때가 좋았네	150

제5부 한 카페에서

유화속의 길	155
곰팡이꽃	157
비밀쪽지	159
선인장	161
선달 그믐날의 바느질	164
소가툰역의 자정	166
시심의 길	168
시인의 죽음	170
한 카페에서	176
쪽정이	178
황산의 대숲에서	179
고독	180
그런 시우가 있으면 좋겠다	181
꽃병의 도화꽃	184

한밤중의 초침소리	185
미풍	187

제6부 달밤의 애곡

교실	193
달밤의 애곡	195
동탄습지의 동화	197
상해의 다화꽃	199
외탄에서 본 황포강	200
망둥어	201
천년의 망령	202
황성옛터에서	204
백합꽃	206
이처럼 조용한 세상은 없을것이요	208
휴일, 남경로의 정오	210
고속도로	213

해설

삶의 질곡의 깊은 계곡에서 길어올리는 따뜻한 시심 - 리문호시인의 시세계 산책	석화 215
--	--------

제 1 부

한장의 유화같은 시골풍경

